

# 남구 미래 100년 향한 29개 혁신 프로젝트 윤곽

〈5대 분야〉

황령산 정상에서 바라본 남구의 전경

## 평화가 미래다 사람이 희망이다

새로운 백년의 비전, 세계평화특구 남구

### 민선 7기 남구 슬로건 제정

민선 7기의 구정철학이 합쳐진 남구 슬로건으로 '평화가 미래다 사람이 희망이다'가 제정됐다. 또 도시비전으로 '새로운 백년의 비전, 세계평화특구

남구'가 설정됐다.

평화는 유엔기념공원을 중심으로 한 유엔평화특구와 오륙도, 이기대 등 남구의 천혜의 자연·관광·역사 인프라를 통합하는 광의의 의미로 30만 남구주민 모두가 이뤄내야 할 새 비전을 내

포한다.

이러 남구 구정의 근원적 목표는 '사람'으로, 인간성 상실의 시대에 사람의 가치를 최우선시 하겠다는 의미로 행정의 진정한 주인인 주민을 위한 열린 구정을 펼치겠다는 뜻을 담았다.

슬로건의 세부적인 구정목표로는 △문화와 관광의 평화도시 △사람중심의 행복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청정도시 △도시재생을 통한 균형발전 △소통과 섬김의 열린구정으로 정했다.

민선7기 주요 공약들이 점차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침체된 남구에 활력을 불어줄 공약은 △문화·관광(4) △일자리·복지(12) △교통·안전(4) △도시재생·건설(6) △소통·참여(3) 등 5대 분야 29개 사업으로 세분화된다.

이들 공약 가운데는 구청장 집무실의 2층 로비 이전이나 주민소통(책임)관 신설 같이 구청장의 의지만으로 바로 실행 가능한 공약이 있는 반면에 UN국제컨벤션센터 유치,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 및 항만도시 재생처럼 막대한 자원과 상위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중장기 프로젝트들도 적지 않다. 남구는 단위 사업별로 추진 계획을 수립한 뒤 8월 중에 공약실천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 문화·관광

■세계등록엑스포 개최의 교통보 역할을 할 UN국제컨벤션센터를 유치하여 부산 남구를 세계 평화의 요람으로 조성하고 현재의 교육환경 예산을 2배 늘려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

■평생학습 강화를 위해 남구시민대학원을 개설할 뿐 아니라 공공도서관 조성과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



### 일자리·복지

■남구희망펀드 조성을 통해 사람에 투자하는(주)부산남구미래를 설립하여 사회적 기업·스타트업 벤처를 발굴·지원하고, 남구시설공단 설립으로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어르신에게는 안정된 일자리 제공.

■지역특성에 맞는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남구민의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을 갖춘 남구꿈나무지원센터 건립 및 중장년층 노후지원을 위한 인생후반전지원센터 조성.

■건강취약지역 인프라를 확충하고 여성과 아이, 노인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도 신규 도입.



### 교통·안전

■유동인구가 많은 용호동의 심각한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대연동 일대를 잇는 용호선 신설 및 교통여건이 취약한 우암동에 신선대 부도를 잇는 노면전차 도입.

■주차장 및 교통시설 확충 등 교통·주차난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주민안전을 책임질 재난안전담당관 제도 도입.



### 도시재생·건설

■부산외대 옛 우암동캠퍼스 일원에 산학융합단지 및 개방형 사이언스파크 등을 추진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 및 항만도시 재생 등과 협업체계 구축 추진.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를 통하여 문현지구를 해양금융과 기술금융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남구의 개발소외지역에 남구형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

■미집행도로 개설, 도로확장 추진 및 각 동별 주민숙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

### 5대 분야 29개 주요사업

#### 문화와 관광의 평화도시

- ① UN국제컨벤션센터 유치
- ② 교육경비 예산 2배 확충
- ③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남구시민대학원 개설
- ④ 권역별 공공도서관 조성 및 작은도서관 활성화

#### 사람 중심의 행복도시

- ⑤ 사람에 투자하는 (주)부산남구미래 설립
- ⑥ 더불어 함께 잘사는 공공안심상가 조성
- ⑦ 남구시설관리공단 설립, 공공일자리 창출
- ⑧ 남구꿈나무종합지원센터 건립
- ⑨ 중·장년층 노후지원을 위한 '인생후반전지원센터' 조성
- ⑩ 민·관 협력강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설치
- ⑪ 효율적 복지예산 집행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및 예산 재정비
- ⑫ 남구형 Community Care 모델 개발
- ⑬ 어르신 공익활동지원사업 지원
- ⑭ 경로당 주치의제 도입
- ⑮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시책 도입
- ⑯ 건강취약지역 건강 인프라 확충

#### 안전하고 쾌적한 청정도시

- ⑰ 용호선·우암선 신교통수단 도입 추진
- ⑱ 교통난, 주차난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 ⑲ 도시공원일몰제 (이기대공원·황령산) 대응
- ⑳ 재난안전담당관 제도 도입

#### 도시재생을 통한 균형발전

- ㉠ 외대부지 활용, 산학융합지구 조성 (개방형 사이언스파크)
- ㉡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 및 항만도시 재생
- ㉢ 문현지구, 해양·기술금융 거점 육성
- ㉣ (도심 공동화) 남구형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
- ㉤ 미집행도로 개설, 도로확장 등 추진
- ㉥ 권역별 주민숙원 해소

#### 소통과 섬김의 열린구정

- ㉦ 구청장 집무실을 청사로비로 이전하여 구청장실 실효를 낮추어 열린구정을 구현, 주민들의 고충민원 처리의 내실화를 위해 주민소통(책임)관 신설 및 지방재정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세대별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 소통·참여

■구청장 집무실을 청사로비로 이전하여 구청장실 실효를 낮추어 열린구정을 구현, 주민들의 고충민원 처리의 내실화를 위해 주민소통(책임)관 신설 및 지방재정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세대별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민선7기에 전하는 남구민의 바램

### 부산과 남구가 르네상스 맞기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직으로 남구 주민이 된지 4년째입니다.

부산지킴이 오륙도와 63층 금융센터가 한국의 재도약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하이, 뉴욕, 오사카 제2의 도시가 각국을 견인하듯 아시아 최고 방문도시 선정과 국제금융센터로 부산과 남구가 르네상스를 맞이하길 바랍니다. 11월11일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을 향한 캐나다 노병의 호루라기 외침이 '던투워드부산'의 찬동소리로 울리길 또한 기대합니다.

이명래 (대연3동)

### 대학로 상권 활성화에 힘써주길

대연3동은 자연부락, 아파트단지, 대학가와 상가 집중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지역 상권이 침체하지 않도록 현재 추진 중인 대학로 테마거리 조성 같은 지속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대동굴 뒤편 황령산 관백나무는 남구의 자원으로 산림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청년창조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학생들의 취·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전동표 (대연3동)

### 도서관 많아지면 행복지수도 경증

남구는 초, 중, 고 대학이 많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남구 지역 내 도서관을 늘려 주민 누구나 가까운 도서관을 방문해 독서를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주민 개개인이 마음의 양식을 쌓으면 행복지수도 높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전정희 (대연4동)

### 경유 아닌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하길

용호지역 천혜의 관광자원과 UN평화문화특구를 활용해 남구가 관리 비용만 지출하는 경유 코스가 아니라 머무르며 소비할 수 있는 관광지로 변화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일자리, 복지, 교통 등 산적인 현안 해결을 통해 남구가 성장할 수 있도록, 구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젊은 마인드로 혁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박두춘 (용호1동)

### 이주여성 위한 일자리 확대를

한국에 온지 10년이 되는 이주 여성입니다. 이제 한국 문화에 익숙해지고 사람들과도 잘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생활에서 어려운 점은 직장을 구하는 일입니다. 이주 여성한테 일자리가 많지 않을뿐더러 일을 해도 단기간 고용이 대부분이어서 생활이 안정이 되질 않습니다. 아이도 자라고 학비와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 여러모로 걱정이 됩니다.

외국인이라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데 제한이 많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주여성들은 대부분 모국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어 공공기관이나 관광명소 등 외국인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일자리를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화를 위한 일자리가 많아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희망해 봅니다.

왕연 (문현동)

### 서민과 함께 하는 구청장 되주길

구청장님께서 평소 서민과 함께 생활하면서 느낀 점을 남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공약과 추진 중인 현안사항을 조속히 해결해 주민과 함께 주민을 위하는, 주민이 행복한, 모두가 살기 좋은 남구 행정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곽동범 (용호3동)

### 주차난·교통체증 해소 우선

용호4동에 40년째 살아오고 있는 주민으로서 두가지를 적고자 합니다. 첫째, 용호4동은 아파트와 주택, 상가 등이 어우러진 최적의 주거환경 지역이지만 단독주택 지역은 주차시설 부족으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둘째, 용호동 지역은 용호2동 용호3구역 주택재개발 등 앞으로 계속적인 개발로 현재도 용호로에 교통체증이 심한데 극심한 교통난이 예상됩니다.

김두홍 (용호4동)

### 교통편의 시설·인프라 확충을

용당동은 지역 특성상 컨테이너 통행량이 많고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교통 환경으로 개발이 지체될 뿐 아니라 주거환경도 열악해 생활에 불편이 많습니다. 대규모 사업보다는 트램과 같은 저비용 고효율 교통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구정을 펼치면 용당동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김정태 (용당동)

### 소외지역 균형발전에 힘써주길

감만2동은 남구 내에서도 낙후된 지역입니다. 인근 우암동, 감만1동은 뉴스테이를 비롯해 지역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지만, 감만2동 지역은 옛 부산 외국어대학교 부지 활용방안이 지지부진하고 지역개발 계획도 별다른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감만2동의 지역 발전을 일기 내에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윤리영 (감만2동)

### 구청장 중심으로 주민화합 기대

개인적으로 소박마을(새뜰사업)에 관심이 많아

오랫동안 피란자산해설 등 여러 교육을 받았는데 현재 우리 주민들에게 눈으로 보여지는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구청장님의 많은 관심 속에 변화하는 우암동을 보고 싶고 기대합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에 많은 변화가 있듯이 우리 남구에도 새 구청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화합 속에 한층 발전하는 살기 좋은 행복한 남구를 꿈꾸어 봅니다.

이희자 (우암동)

### 빈집을 문화복합공간으로 활용

문현1동에 40여년 거주하고 있는 토박이 주부입니다. 우리 동네는 빈집이 많은데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청소년들의 탈선, 범죄발생의 우려가 많은 실정입니다. 구청에서 관련부서와 협의해 빈집을 매입해 주민자치 및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문화복합전용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타 주민센터는 복합학습공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동은 공간이 협소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 받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운은 (문현1동)

### 소외계층에 더 많은 관심을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밀집된 저소득 소규모 주택 육상에는 대부분 물탱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난방시설, 통풍조차 안 되는 좁은 집에 살고 있는 어려운 주민들은 여름날 뜨거운 물탱크로 시원하게 씻을 물조차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택가에 우선해 물탱크 보온시설 설치나 지수관 교체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남호 (문현2동)

### 곰창축제 부활로 상권활성화를

문현곰창골목은 타 지역에서 소문난 전통 곰창거리입니다. 지역경기가 침체로 곰창골목 상권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근래에 문현교통광장에 녹지습터가 조성되어 주변이 많이 좋아졌으나, 상권활성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외래 방문객을 위한 주차공간 마련, 예전의 곰창축제를 부활시켜 지역 상권 활성화에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임종채 (문현4동)

### 주민과의 약속 꼭 지키길

항상 초심을 잊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남구 주민이 잘 살 수 있는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사람이 희망이다'라는 구호처럼 항상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과 한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구청장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박태양 (대연5동)

